3면에서 계속

이곳 지명 양촌을 호로 삼고 벼슬에 나가서도 자주 찾았으며 1391년 익주益州에서 유배생활을 끝내고 돌아와 예경禮經의 절차를 고정考定하고 주역、시경、서경、춘추春秋에 대하여 천견록淺見錄을 저술하였다 ' 하고 ' 조선이 개국되어 양촌선생을 여러번 불러도 나가지 않자 1393년 태조대왕太祖大王이 계룡산 행차길을 이곳으로 우회하여 친림징소親臨徵召하였다 한다 '고 기록되어 있다.

전설은 이곳의 안터에서 양촌이 거처하며 아랫마을 바위안에서 낚시를 했다는 것이다. 바위안에 지금은 하천이 곧게 나 있지만 옛적에는 그 굽은 내가 산모퉁이 바위 밑을 감돌고 나가서 거기에 파인 웅덩이에서 족히 낚시를 할 수가 있었다 한다. 이 내는 구계천九溪川으로서 바로 율면천栗面川의 상류가 된다. 1970년대에 이천군에서 율면 석산리 앞 내에서 지하수를 개발하자 그 상류 구계천의 수원이 마른다고 음성군에서 항의하여 일어난 다툼이 언론에 보도되며 소란했던 일도 있다 한다. 그런만큼 바위안의 낚시터라 하면 양촌이 안터가 아닌 양아리에 살았더라도 마찬가지로 산책하며 낚시를 할 수 있는 거리이다. 그런데 삼성면 용대리의 안터는 동북향을 하고 있는 마을이다. 따라서 이곳은 양지바른 마을의 뜻인 양촌이 되기 어렵다는 게 한승남씨의 견해이다. 또 한씨는 그 비문에서 양촌선생이 이곳에 ' 우거 했다고 표현한 것이 잘못인 점도 지적하고 있다. 우거란 ' 남의 집이나 타향에서 임시적으로 거주하는 것 인데 양촌이 분명히 ' 오가吾家의 구업舊業 '이 거기에 있다 하였고 구업이란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세업世業인데 사람이 그 세업에 가 유거留居한다면 몰라도 우거했다고 한 것은 뜻이 좀 다른 표현이라는 것이다.

또 양촌집 7권에 있는 시 ' 제순곡이공서실題盾谷李公書室 : 순곡 이공의 서실에 쓰다 '의 자주自註에서 ' 순곡은 양촌의 동남쪽 10리허에 있는데 우인友人 이구령李九齡이 산다 '고 한 부분도 인용하면서 순곡이 양촌에서 동남으로 10리쯤이라면 음성군 삼성면이나 금왕읍의 지명이었을 것이라 하고 있다. 이구령은 어떤 인물인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양촌집 7권의 시 ' 보주노상별도은선생시甫州路上別陶隱先生詩 : 보주甫州(예천醴泉) 노상에서 도은陶隱(이숭인李崇仁)선생을 작별함 '을 소개하면서 ' 적후상봉사몽중謫後相逢似夢中 : 유배된 뒤 서로 만나니 꿈만같은데, 임기홀홀우서동臨岐忽忽又西東 : 갈림길에서 총총히 동서로 엇바뀌네, 종금지유귀전계從今只有歸田計 : 이제부터는 다만 전야로 돌아갈 계획뿐이니, 세만동위인사옹歲晩同爲隣舍翁 : 늦은 나이 한가지로 이웃집 노인이나 됩시다 ' 한 것이 도은 이숭인의 구업과 양촌이 바로 인접해 있었음을 뜻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도은 이숭인이 바로 용대리 안터에서 살았다는 설을 펴고 있다.

■양아리는 양촌 조모의 별업설

권양촌의 조모는 강양군부인江陽郡夫人 합천이씨陜川李氏로서 일가구봉군一家九封君을 이룬 국재菊齋 문정공文正公 권보權溥의 셋째아들 충정공忠靖公 영가부원군永嘉府院君 고皐의 배위이다. 그리고 양촌은 충정공의 셋째아들 정간공靖簡公 영가부원군 희僖의 넷째아들이다. 강양군부인 합천이씨는 고려 후기 첨의찬성사僉議贊成事에 이른 장숙공莊肅公 지윤보池允輔의 외손녀이다. 지윤보의 딸이 국재 권문정공의 문인門人인 찬성사 합천 이설李偰에게 출가하여 강양군부인을 낳았다. 강양江陽은 합천陜川의 별호이다.

충주忠州가 본관으로 된 충주지씨의 지윤보는 바로 양아리의 뒷마을이 되는 율면 북두리의 지시랭이에서 살았다는 것이 한승남씨의 설이다. ' 지시랭이 '는 지씨池氏의 시랑侍郎 벼슬을 따서 부른 ' 지시랑池侍郎이 '의 와음이라는 것이다. 지윤보는 고려 충렬왕 25년, 1295년까지 살았는데 충렬왕이 세자로서 몽고에 들어갈 때 시종하여 뒤에 대장군으로서 2등공신이 되고 여러 벼슬을 거쳐 지첨의부사知僉議府事에 이르러 치사致仕하였다. 이러한 지윤보의 전장이 율면 북두리와 산양리 일대에 있었으며 그 딸을 합천 이설에게 출가시키며 그 일부를 분재分財해 주고 그 딸이 뒤에 다시 자기의 딸 강양군부인에게 이 전장을 분재해 주었으며 이것이 이씨의 손자 양촌에게까지 세전이 되었다고 본 것이다.

충주지씨의 시조 지경池鏡은 본디 중국사람으로 고려 광종光宗 11년, 960년에 태학사太學士로 동래東來하여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 태보太保 평장사平章事에 이르렀고 그 6세손 지종해池宗海가 충주忠州에 세거하면서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에 충원백忠原伯에 봉해졌다. 이로부터 지씨의 본관을 충주로 하게 되었고 문하시랑평장사 지종해가 살던 마을을 지시랑池侍郎이, 즉 지시랭이라 부르게 되었으니 지시랑이나 지시랭이는 다 지시랑리池侍郎里의 뜻이겠다는 것이다.

이 지시랭이가 고려 때 충주땅이었기 때문에 지씨의 본관이 충주로 된 것이다. 이천의 율면이 충주였음은 고산자古山子 김정호金正浩가 지은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대동지지大東地志)를 보아도 안다. 장호원、설성雪城면、율면, 음성의 무극無極은 옛 음죽陰竹 고을이었는데 1910년 국치후 음죽이 없어지면서 무극은 충북 음성군의 금왕면이 되고 나머지는 경기 이천군에 편입되었다. 음죽은 원래 백제땅인데 고구려에 들어가서는 노음죽현奴音竹縣이 되고 신라 경덕왕 때는 음죽현이 되어 개산군介山郡(죽산竹山의 별호)에 속했고 고려 현종顯宗 때 충주에 편입되었다가 조선 태종 13년, 1413년에는 충청도에서 경기도로 편입되었다. 이렇게 되어 이천의 율면이 고향이면서 본관은 충주로 쓰고 있는 성씨에 충주안씨忠州安氏가 있는데 이는 율면 석산리 석교촌石橋村이 그곳으로 안장사安壯士가 놓았다는 돌다리의 전설에서 그 마을이 석교촌으로 된 유래 등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한승남씨는, 조선 현종시대에 우리나라 지방행정구역에 도입되어 쓰게 된 면面의 범위는 오늘날의 면적의 절반 정도였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의 이천시 율면은 상율면과 하율면이 합병된 것이라는 것이다. 영조 때 나온 여지도의 방리편坊里篇을 보면 상율면과 하율면의 명칭이 나온다. 그리고 그 제언편堤堰篇을 보면 ' 상율면 북두리 양야촌 제언上栗面北頭里陽也村堤堰 주회일천삼백이척周回一千三百二尺 장삼백구십구척長三百九十九尺 광일백육십구척廣一百六十九尺 자현남이십리自縣南二十里 : 상율면 북두리의 양야촌제언(저수지둑)은 둘레가 1302척, 길이가 399척, 너비가 169척으로 고을 남쪽에서 20리 떨어져 있다 '고 나와 있다. 제언은 농용수를 가두어 두는 저수지의 둑이며 조선조에 이를 맡아보던 관아로 제언사堤堰司도 있었다. 여기에서 양야촌의 지명은 곧 양촌이고 당시에는 양야촌이 북두리에 속해 있었으나 뒤에 양야촌이 북두리에서 분리되어 산양리가 되었다는 것이다.

■한성보漢城洑와 어래御來바위

이천시 율면 산양2리 돌원천乭原川에 한상보 또는 한성보漢城洑라 부르는 보가 있고 그 아래로 북두리와 석산리、오성리 사이에 전개되는 평야를 한상봇들 또는 한성봇들이라 한다. 1997년 간행된 율면문화유적、민속자료보고서 301면 북두리 지명편地名篇을 보면 한상보조에 ' 산양리에서 북두리로 흐르는 보. 다리목들 밑에 있음 '이라 하였고 ' 한상봇들은 왱말 앞에 있는 들 '이라 하였으며 304면 산양리편을 보면 한성보가 ' 산양2리에 있는 보 '라고 기록하고 있다.

산양2리의 양아리가 돌원천의 상류에 있고 북두리는 그 하류에 있으니 상류에 있는 한성보의 물은 아래의 들논에 관개되고 있다. 한상보는 한성보漢城洑의 와전이다. 그리고 이 보는 한성과 관계가 있다. 한승남씨는 이 한성보가 한성댁보漢城宅洑에서 온 것이고 한성댁은 서울 한성漢城에 경제京第를 둔 대갓집을 말하는 것이니 바로 권양촌댁을 지칭하는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즉 양촌에 있던 권양촌의 별서別墅를 한성댁이라 사람들이 불렀고 그 들논을 관개하는 보를 한성보라 불렀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안성시와 이천의 경계를 이루는 모가면에 오음산五音山이 있는데 이는 마국산馬國山의 별칭이다. 조선 태조가 개국하고 계룡산 신도안(新都內)에 도읍을 옮기고자 답사를 가면서 지나는데 마국산에 오색 구름이 피어오르며 아름다운 소리가 났다 하여 이로부터 오음산이라 별칭하였다 한다. 태조가 한양에서 공주로 가자면 과천果川、수원、천안쪽으로 가는 것이 편한데 왜 광주廣州의 쌍령雙嶺(대령大嶺、소령小嶺)을 거쳐 이천의 마국산 아랫길을 택했을까. 이는 망이산 동쪽 양촌에 있는 권양촌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또 양촌으로 오더라도 이보다 편한 용인에서 양지、백암、일죽으로 이어지는 삼남대로가 있으나 태조는 이천길을 택했기 때문에 오음산의 전설이 생겼던 것이다.

오음산을 거쳐 양촌에 이른 이태조의 어가御駕는 들건너의 어래바위(御來岩)라는 곳에 올라 권양촌을 불러 만났다. 어래바위는 율면 산성리山城里 팔성산八星山 자락끝에 길이 2백여미터의 단애斷崖를 이룬 암벽이었다. 우리가 한승남씨와 함께 답사를 갔을 때에는 이 어래암의 단애가 우거진 수목에 묻혀 멀리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나무가 없을 때에는 2백여미터의 능선을 이룬 단애의 암벽이 잘 드러나 띄일 것같았다.

이 어래바위가 문헌에 처음 나온 것은 1955년 2월 발행한 ' 이천대관利川大觀 '에서가 처음이라 한다. 동책자 123면의 ' 어래암御來岩 '조에 ' 율면 산성리 앞산, 팔성산지록八星山支麓에 있는 어래암은 화강암 花崗巖으로서 높이 20여척의 층암절벽의 기암奇岩으로 북면北面에는 자연층계가 되어 있고 주위에는 본암本岩을 앙시하는 듯 무수한 대소암석이 옹립擁立하여 있다. 암상岩上은 3,4평 정도의 자연좌석이 되어 있으며 그 암간岩間에는 만고상청萬古常靑의 향목香木이 자생하여 천연 정자를 이루어 그 경개가 절승絶勝하다. 이곳에는 이태조李太祖 등극후 이곳에 우거寓居하고 있는 권양촌權陽村 선생을 방문하여 차암산此岩山에서 선생과 더불어 원대한 포부를 피력하고 국정國政을 의논한 후 선생을 등용하여 조선 5백년의 찬란한 역사의 기초를 공고히 한 사실史實이 있었다 하며 이로 인하여 세칭 어래암이라 전하여지고 있다 '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1997년에 나온 ' 율면문화유적、민속조사보고서 '에는 어래바위가 산성리 팔성산 꼭대기에 있다고 하고 있다.

어래바위는 산성리 본마을을 뒤안으로 돌아올라가 칠성사七星寺라는 작은 암자 뒤로 올라가서는 거꾸로 능선을 타고 조금 내려오면 그것이 끝나는 곳에 단애를 이루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능선 끝에 정丁자머리로 박혀 돋은 바위를 밟으며 정상에서 북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산이 뚝 떨어진 가운데 옹립한 암석이 볼만하다. 산림이 녹화되기 전에는 멀리서도 이 바위가 돌립突立해 보였을 것이나 지금은 울창한 수목에 가려 가까이 다가가야 비로소 모습이 드러난다. 반세기 전 자유당 시절까지도 있었다는 향나무 천연정자는 모습이 없었다. 자생하였다는 만고상청의 향나무도 어디에 있었을 듯한 흔적조차 없었다.

한승남씨는, 태조가 양촌에게 벼슬을 내려도 응하지 않을 것을 익히 알고 ' 태조 2년, 1393년 2월에 계룡산 신도안 행차길을 우회하여 광주、이천 모가의 마국산 아래로 해서 율면 양아리에 있는 권양촌을 직접 만나러 왔다 '고 하면서 ' 출사언약을 받음에 있어 땅에서 할 것같으면 면종복배面從腹背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양아리에서 건너다보이는 산성리 팔성산 기슭에 있는 바위로 권양촌을 불러내 출사 승낙을 받아낸 것이다. 금석맹약金石盟約이란 서로 언약을 함에 있어 땅에서 하지를 않고 바위에서 함으로써 죽어도 파기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고로 어래바위는 태조가 권양촌을 만나 출사언약을 받아냄에서 붙은 바위이름 '이라고 말하고 있다.

음성군 삼성면 용대리에는 이태조가 낚시를 하는 권양촌을 친히 찾아와 만났다는 친림보의 전설이 있다. 친림보는 곧 친히 임했다는 뜻의 친림보親臨洑라는 것이다. 한승남씨는 이천의 행정구역 안에 한정하여 지명 유래와 전설에 관해 글을 썼고 이를 벗어난 지역에 관해서는 구체적 연구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가보면 충북의 음성군 삼성면 용대리의 안터와 경기 이천의 율면 산양리 양아리는 인접하여 크게 보아 일구一區의 자연부락으로 보아도 무방할 듯도 싶었다.

<사진 · 글 權五焄>